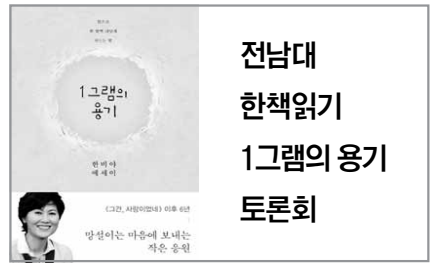


# “용기있게 한발짝 내딛으면 새로운 길 열려요”



전남대  
한책읽기  
1그램의 용기  
토론회

범시·도민 독서운동  
학생·교사 등 200여명 참석  
한비아 작가 책 읽고 느낀  
용기에 대한 생각·경험 나눠

“익숙하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국제구호 활동가 한비아씨의 말은 무슨 일이든 용기를 갖고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전남대 국악과 편수정양)

책 한 권을 놓고 광주 전남 시도민이 생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책토론회가 전남대에서 열렸다.

범시·도민 독서운동 ‘광주·전남 독’을 진행중인 전남대는 지난 26일 오후 4시 도서관(별관) 융합인재교육원 취업강의실에서 ‘2015 한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도민과 학생, 교직원, 독서모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한비아 작가의 ‘1그램의 용기’를 읽고 느낀 용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대 국악과 이만관 교수의 사회로 모두 다섯 명의 패널이 참가했다. 목포 덕인고 학생 클럽 ‘북어국’의 장효재(10대)군, 전남대 국악과 학생모임



지난 26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1그램이 비록 작지만 그 용기가 모이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1톤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을 공유했다.

‘책처럼 음악처럼’ 대표 이승은(20대)씨, 광주 북구 양산동 작은도서관 독서모임 ‘햇살 가득’의 윤방웅(30대)씨, 주부 모임 ‘독서백편’의 최영순(40대)씨, 어린이도서연구회 ‘동그라미’의 이정호(60대)씨가 각 세대를 대표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북어국’의 장효재군은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처럼 음악처럼’ 이승은양은 “한비아의 ‘1그램의 용기’는 작지만 강한 선물이었다. 나 자신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았다”면서 “책을 통해 1그램의 용기가 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동그라미’ 이정호씨는 “무

더운 여름에 마시는 한 모금의 생수 같았다”며 “평소 부족했던 용기를 채워주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패널들은 용기가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서도 공감했다.

‘독서백편’ 최영순씨는 “책의 내용대로 길이 있어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딛어야 길이 열린다는 말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햇살 가득’ 윤방웅씨는 “왜 하필 제목을 ‘1그램의 용기’라고 썼을까, 생각해보니 한발짝 내딛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며 실천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들은 한비아씨가 언급한 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

지고 잠재력이 풍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선불리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들은 “1그램이 비록 작지만 그 용기가 모이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1톤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만관 교수는 “‘1그램의 용기’의 저자 한비아 선생의 생각과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인생에서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도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는 이번 한책 토론회에 이어 12월에는 서평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530-35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리 크리스마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내달 1일 광주문예회관

‘미리 즐기는 크리스마스’  
흥겨운 캐롤과 팝송, 유명 합창곡을 만날 수 있는 연주회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합창단 제160회 정기 연주회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임한규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의 첫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A Ceremony of Carols’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캐롤들로

구성된 작품으로 아기예수와 성모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다. 또 멘델스존의 ‘Christus’, 존 루터의 ‘Gloria’를 비롯해 비발디와 모차르트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남긴 크리스마스 관련 곡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흥겨운 캐롤을 들려준다. ‘북치는 소년’, ‘아기 예수’, ‘징글 벨’, ‘Let it snow’,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등 유명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20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곳곳 발로 누비며 취재한 내용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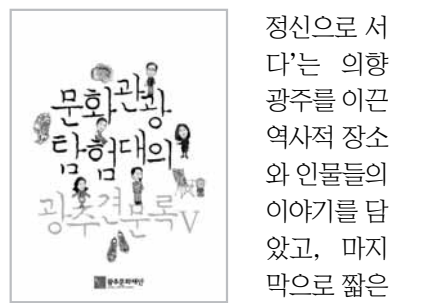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전문록 V’ 나왔다

광주 지역 곳곳을 발로 누비며 직접 취재한 내용들을 담은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전문록 V’가 나왔다.

문화관광탐험대는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 자원 활동가 모임으로 광주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광주의 매력을 발굴해 왔다. 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100여 컷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이야기를 250페이지 내외의 책자로 엮어 냈다.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전문록 V’는 총 52가지 이야기를 7개의 장으로 나눴다. ‘우리도시 광주의 문화와 삶’은 ‘꼭 한번 가봐야 할 문화 공간과 예술인의 삶’을 담았고, ‘물길 따라 광주를 건다’는 배를 타고 오갔던 옛 광주의 장소와 이야기를 담았다.

‘세월 따라 뜨는 역지는 역’은 호남선 KTX개통과 함께 잊갈린 운영에 놓인 철도역 이야기가 들어있다. ‘마을에서 역사인물을 만나다’, ‘오월, 그



정신으로 서다’는 의향 광주를 이끈 역사적 장소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마치 막으로 짠 시간에 다양한

한 정보를 접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정보들을 ‘박물관, 그 공간과 시간의 탐험’에 실었다.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는 탐험대원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래픽디자이너, 지하철역장, 방송작가 출신 등 다양한 직업과 이력을 지닌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 발간 기념식은 오는 12월4일 오후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책자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배포한다. 문의 062-670-74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전당 공연·전시·교육 등 전문인력 채용

아시아문화원, 12월3~8일 접수

아시아문화원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 전시, 교육, 아시아문화연구사업 등 콘텐츠 개발·운영 및 제작 과정 등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

분야는 공연사업과 전시사업, 교육사업, 아시아문화연구사업을 총괄할 실장급 4명을 비롯해 경영지원·공연·전시기획·전시사업·교육문화연구·무대기술·정보화·공연장관리·디자인 분야 4급과 5급(갑·을) 등이다. 1~2급 상당의 직급이 부여되는 실장급은 3년 임기제다. 원서 접수는 12월3~8일 오후 2시까지

인터넷(acc.trns.co.kr)으로만 가능하다. 실장급과 4급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12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5급 갑·을은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을 거쳐 2016년 1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www.ac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포럼

문화중심도시 사업 지역민 목소리 듣는다

내달 2일 민주화운동기록관

최근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역 목소리를 들어보는 포럼이 열린다. 12월 2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옛 가톨릭센터) 다목적 강당.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주민예총이 주최한다.

1세션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에서는 이승권(조선대 교수), 정순기(광주연극협회장),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책

임연구위원), 주홍(작가)씨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과 황병하(조선대 교수), 박선정(광주대 겸임교수)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세션 ‘조성 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에서는 천득연(전남대 교수), 윤만식(광주민예총 회장), 선재규(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씨 등이 발표하고 김일용(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임택(광주시 문화도시특별위원회), 전교필(전 대인예술시장 감독)씨 등이 토론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